12/15/19

설교 제목: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5 장 16-32 절

(막 15: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막 15: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막 15: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15: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막 15: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막 15: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막 15: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절관주] 요 19:17

(막 15: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절관주] 시 69:21

(막 15: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절관주] 시 22:18

(막 15: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막 15: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절관주] 마 27:37

(막 15: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막 15:28) (없음)

(막 15: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절관주] 요 2:19

(막 15: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절관주] 마 27:40

(막 15: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막 15: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지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막 15: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군인들은 채찍질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으로 끌고 갔습니다.

(막 15: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막 15: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막 15: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15: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막 15: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브라이도리온(The Praetorium)'은 총독의 관저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브라이도리온 뜰 안으로 들어간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왕을 상징하는 색깔인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하면서 경례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홀을 상징하는 갈대 막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희롱과 수치 속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이 상황을 뒤집을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버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 26: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당장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태초에 하늘에서 이미 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쌍방 계약의 내용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이땅에 내려 오셔서 죽기까지 이 계약을 충실히 지키셨고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같은 계약이 있었을 지라도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을 파기해 버릴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버렸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에게 고문과 희롱과 모욕을 가하고 있는 이들을 처치해 버려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며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견디어 내고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지켜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고문과 희롱과 모욕을 가하고 있는 이들을 처치해 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이 죽지 못하게 된다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이 모진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다 견디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이 모진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죄를 진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죄값으로 그렇게 채찍으로 얻어 맞고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다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며 고통과 희롱과 모욕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너무 따지고 들면 머리 아파,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모여 등등의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지혜인양 지껄여 댑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말들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느라 그토록 처절히 고통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 받으셨던 주님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리며 생명바쳐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희롱을 마친 뒤 예수님에게 희롱하기 위해 입혔던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본인이 입었던 옷으로 갈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향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막 15: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속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없다고 판단되자 마침 예수님의 곁을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로마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들이 시키는대로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는 하면서도 속으로 참으로 '운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운수없는 일이었을까요?
당장은 몰랐지만 이 일은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본문의 저자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가족들의 이름을 거명했을까요?
당시 마가 복음을 받아 읽을 초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알렉산더 루포 또 그 아버지 시몬은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알렉산더 루포 또 그 아버지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크리스챤이 되어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이 일을 당하자 처음에는 억울하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면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면서 같이 골고다 언덕에 오른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 보았을 것이고 생각해 보았고 마침내 바로 자기 곁에서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한걸음 한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던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몬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크리스챤이 되게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예수님이 아예 걷기 조차 힘들게 되자 예수님을 끌어안고 부축하며 골고다 언덕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은 채찍질 당해 갈기 갈기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던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와 그의 가족의 죄를 씻기고 그들을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동역자의 명단에 기록하였으며 특히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롬 16: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헌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어찌보면 재수없어 일어난 것 같은 이 일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과 동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도 구레네 시몬처럼 힘들어 하기 싫은 일이 억지로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다하지 말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막 15: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막 15: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군인들은 약 기운에 취하여 고통을 덜 느끼도록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기운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군인들의 이같이 한 것은 예수님께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사형수에게 행하던 관행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군인들의 다음 행동에서 여실히 입증이 됩니다.

(막 15: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후 바로 예수님이 내려다 보시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한 인간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들은 세상 물질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막 15: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막 15: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막 15: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에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 삼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 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써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갖은 모욕들을 퍼부어 댔습니다.

(막 15: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막 15: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막 15: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막 15: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에수님은 그들이 희롱하며 말하는대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모두 해치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여 잡아 가두고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며 잠잠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구원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마지막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시는 사명을 성공리에 수행해 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힘과 권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인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수님의 그 희생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에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기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인내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다.